

손열

전파모임

2-28-15

## I. 문제의식

- 왜 공동체인가? (유럽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 공동체 as symbol and aspiration; 인간관계의 친숙함, 안정감, 안전감, 상호염려 등을 드러내는 언어임.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용한 언어.
- - 일본에서 공동체는 게마인샤프트 번역어. 사회학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국제정치 개념으로 확장한 이유는?
- 이 개념이 담지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 1939년 일본의 동아협동체의 유통 분석, 협동체로 쓴 까닭은. EA community, EA gemeinschaft, EA cooperative unit

## II. 개념의 창조: 왜 동아협동체인가?

### 1. 미키 기요시(三木清), 신일본의 사상원리(1938)

- 미키 기요시의 동아협동체론: 고노에 후미마로 수상의 “동아신질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공/협동체를 국제정치의 단위로 격상시킴.
- “空前的 秀才”: 1897년생, 교토대학, 하이델베르크, 마부르크대학 수학, 法政대학교수, 신칸트주의로부터 맑스주의, 1930년 투옥과 전향, 요미우리신문 칼럼니스트, 현실로부터 철학적 개념 구성 노력. 1931년 이래 이른바 황도(皇道)파 파시즘(일본적 정신 정화, 팽창주의)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昭和연구회 참여, 동아협동체, 징용, 옥사(1945).
- 미키의 이론은 중일전쟁 발발 2년여가 흐른 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의 무력점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정책이념으로 채택됨. 중국인의 마음을 얻는 정책이 필요한 현실적 요구? 혹은 출구전략?
- 중일전쟁의 일본에 대한 의미: 일본이 아시아로 확장하려면 일본문화에서 대륙문화로 문화적/정신적 변환이 필요함. “중일전쟁 해결은 국내개혁 없이 불가능함...국내개혁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중국 등 동아시아의 일체성의 견지에서 파악되어야 함”
- 중일전쟁의 세계사적 의미: 구미 자본주의(영리주의)와 근대주의(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로부터 일본과 아시아를 구출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통해 아시아의 단합과 통일을 기함. 일본은 중국의 근대화를 돕는 동시에 근대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도록 공진.
- 미키의 서양비판의 핵심은 이기적이고 불평등한 문화로서의 자본주의에 있음.
- 단순한 민족주의와 근대적 세계주의 극복
- 그는 민족이란 혈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교토학파)인 만큼 동아시아도 구성주의적으로 단일공동체(연방)가 가능하다함. 서양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동아시아의 협동체는 전통(유교적 전통)에 의존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 봉건의 부활이 아닌 신문화의

창조. 동양적 휴머니즘에 기반한 협동주의(cooperativism)와 전문지식(expert knowledge)에 의한 통합. 반자본주의적이고 반근대주의적 인자로 구성된 공동체.

- 협동체 내부에서 각 민족의 독자성 인정하되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민족과 민족을 결합하는 공공성/세계성을 띤 지역적 정체성 창조, 따라서 합리적 협동체이어야.

## 2. 오자키 호츠미, 동아협동체의 이념과 그 성립의 객관적 기초(1939)

- 동아협동체 이념은 중일전쟁에 대처해야 할 일본의 근본방법임

- 중국의 민족의식에 대한 재평가: 중국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근거에는 항일통일전선에서 보듯이 민족문제, 민족주의가 있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참여 없는 어떠한 동아협동체도 성립될 수 없음.

- 그러나 국민당정부는 이를 기만으로 받고 있으므로 우선 중국의 민족적 투쟁을 일정기간 상대해야 할 운명임. 중국의 민족문제를 정면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동아협동체는 결국 신비주의적 결정론을 끝날 것이라 단정함. 협동체를 초국가적 체제로 인식하는 견해 역시 비현실적.

- 동아협동체의 성패는 중일관계, 구미와의 국제관계에 달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재편성. 지도정신의 근본적 변경이 필요. 중국을 끌어안고 가려면 공동체의 가치를 일본적 정수(essence)로 잡을 수 없음.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또 지구적 보편을 갖는 가치 찾아야.

## III. 개념의 전파: 조선에서 동아협동체의 수용

### 3. 홍종욱, “중일전쟁기 조선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논리”(한국사론 2000)

- 전향은 단순히 일제의 탄압과 사회주의자의 굴복으로 보기엔 보다 복잡한 사연이 있음.

- 중일전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

- 전향은 명백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띤 (개인문제를 넘어서) 전향이란 문제는 일본의 상승,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고찰해야.

1930년대 초 만주사변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대량 전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민족’이란 장벽이 있었기 때문. 이 시기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계급에서 민족으로 전향하였다면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때문에 -- 즉, 민족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 전향하지 못함.

중일전쟁 발발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중국도발(국제적 반파시스트 전쟁)과 전시경제로의 이행을 일제의 파멸위기로 규정하면서 희망을 가졌으나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장악하게 되자 희망을 버리게 됨. 또한 일소개전을 기대한 것과 다르게 소련이 평화외교를 전개하자 절망함.

“事實의 受理” - “時代的 偶然的 受理”(백철) 중일전쟁이란 세계사적 사실을 받아 들여 이제 일본의 성장을 막을 세력이 없으며 결국 일제가 제시하는 정책과 구상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과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

#### 동아협동체의 두가지 매력

1. 민족간 협동의 가능성: 조선 민족이 일-만-지와 동등하게 민족적 협동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희망.
2. 통제경제: 영미 자본주의 경제를 넘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의한 조선경제의 발전 열망.

#### 협화적 내선일체론

동아협동체의 일본은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며 조선도 더 이상 식민지가 될 수 없음. 자주적 이익과 문화를 갖는 동아 제민족간의 공존공영. 그러나 미키는 협동체 내부 각 민족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조선을 하나의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았음.

#### 4. 김명식

- 냉전기는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이후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조선공산당이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이었고 전향하였기 때문에 잊혀진 인물. 1999년 독립유공자로 애족장 추서. 역사속의 젊은 그들에서 언급.

- 1892생. 한성고보, 와세다 정경학부(1915), 신아동맹단, 귀국후 사회혁명당 창립멤버, 동아일보 논설반원, 新生活 발간, 1922년 필화사건으로 조선 최초 사회주의재판, 복역, 형집행정지 출옥, 오사카 병치료 및 노동운동 지도, 검거, 잔여형기 복역, 석방, 이후 비판, 삼천리, 신동아, 조광, 동아일본, 조선일보 등에 기고 활동, 1943년 사망.

- 1920년대 레닌 등 사회주의 소개, 식민지 사회경제적 성격 논쟁 주도,

- 1930년대 초반 조선연구 -> 전통, 조선에 대한 관심, 단군연구; 국수주의적 조선 연구 비판

- 1934년이후 단순히 국제정세 해설 -- “일중신관계와 열강의 태도(신동아 1934.6),” “북중정권의 신행태(삼천리 1935.10)

“문필생활 10년”(신동아 1935.9)

- “문필생활자는 사회의 선각자인 것 같이 생각하지마는 사실은 실행자의 배후에 추종하여 그들의 주의주장 및 실천방책과 경과에 대한 주석자, 변호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종래견해와 주장을 수정하여 그 환경의 적응자가 되고 만다. 그러치 아니하면 그는 문단의 이면으로 퇴장치 아니할 수 없음으로써이다.”

- 문필생활은 “첫째 준비, 둘째 편익, 셋째 환경의 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준비는 자기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지만 편익과 환경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리한 환경과 안정된 편익을 얻지 못한다...환경이 불리한 그리고 안정한 편익이 없는 조선의 대다수의 문필생활자의 암담한 일상생활을 생각하면서 힘없이 붓을 던진다.”

- “실행자”가 될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의 처지 비판.

“건설의식과 대륙진출”(삼천리 1939.1)

- 동아협동체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이미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중국의 면목을 일변케 하여 경제적 공작이 전개됨과 함께 문화적 생활의 협동이 실현되고 있으니...”(48)

- 중국의 연방안에 기대하면서 조선도 이에 참가하여 건설의식을 고취하여야 함.

- 이중 양민족 간 “調和役”
- 삼민주의, 전체주의 비판: 민족과 민권은 근대국가의식, 민생은 사회주의 의식으로 이 둘이 단일개념을 형성할 수 없음.
- 조화역의 조건은 이상주의: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 경제적으로 고렉픽브, 사회적으로 휴매니즘”으로 구성되는 “이상주의”가 조선의 신건설의식의 신행태가 되어야 함.
- 독재의식, 삼민주의 배경, 자본주의의 탐욕 배경, 공산주의의 空想 수정, 인문의 발전, 이를 중일 양국에 모범을 보이고 선전함.
- 협동체의 문화는 서양적인 것도 동양적인 것도 아닌 세계성을 지닌 것.

#### 경제의 활용

- 중일전쟁기 사회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 소작쟁의 급증
- 통제경제 확립에 의해 ‘공정가격’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실시하고, 토지의 국가관리 등 주장. 이를 “日滿支 블록” 전체의 통제경제 강화 틀 속에서 경제이득과 이를 통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러나, 대륙병참기지 이상의 기능 가능성?

#### 김명식의 국제정세판단은 옳았나?

-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패권 확대에 따라 독립의 희망을 잃어감.
- 중일전쟁 초기 전세에 대한 과대평가; 일본이 전선교착과 총력전 지속에 따른 부담에 고심하면서 동아협동체를 내어 놓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일미국교의 타진”(비판, 1938.4)에서 단기적 시야에서 정세평가, 소련의 불개입, 영불미 공조의 불발을 지적하면서 영미 협조 어렵게 보고, 미일간 충돌의 가능성을 낮게 봄. 장기적 시야 결여. 일본의 입장에서 논의 전개.

#### 혁신정책에 관한 기대는?

- 실낱같은 희망?
- 일본정치에 대한 통찰력? 탈파시즘적 정책을 펼친 고노에 내각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었을까.
- 미키도 고려하지 않은 민족 단위로서 조선의 정립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지.
- 
- 고노에 내각이 퇴진하고 쇼와연구회 소멸 이후 함께 사라짐.